



아시안게임 D-6



남상용-송이나 커플은 탭고와 폭스트롯 부문의 유력한 금메달 후보다.



댄스 스포츠 대표팀 선수들이 아시안게임 금메달을 염원하는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왼쪽부터 조상호 커플, 남상용 커플, 이상민 커플, 연합뉴스

“우리도 AG 금메달 후보”

광저우 아시안게임 댄스스포츠 국가대표 선수들

‘광저우에서 금빛 춤사위를 기대하세요’ 2010 광저우 아시안게임 개막이 6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서울 성동구 용담동 대한댄스스포츠경기연맹 성동구연수원은 금메달 사냥을 노리는 댄스스포츠 스탠더드 부문 국가대표 선수들의 훈련 열기로 뜨겁다.

스탠더드 대표팀 사령탑인 황인만 감독의 댄스 스튜디오인 이곳에선 지난 5월 태극마크를

단 남상용(26)·송이나(23), 조상호(28)·이세희(24), 이상민(22)·김혜인(22) 커플이 결전을 앞두고 컨디션을 끌어올리며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한국 댄스스포츠는 아시안게임에서 처음 정식 종목이 된 이번 대회에서 금메달 2개 이상을 따겠다는 목표를 잡았다. 그리고 스탠더드(모던) 종목에 각 5개씩 총 10개의 금메달이 걸려 있는 가운데 한국 선수단은 특히 스탠더드 종목 선수들에게 거는 기대가 크다.

4년 뒤 호흡을 맞춰온 남상용-송이나 커플과 조상호-이세희 커플이 유력한 금메달 후보로 꼽힌다.

한양대 체육과 산·후배 사이의 남상용-송이나 커플은 지난 2006년 6

월부터 함께 춤을춰왔던 연인 파트너서서 최고의 활짝 호흡을 자랑한다. 매일 낮 2시부터 성동구연수원에 체력 강화 위주의 강도 높은 훈련을 하고 저녁에는 평소 타깃집을 해왔던 백문중-정명숙 댄스 스튜디오(라무체)로 옮겨 기술 훈련을 이어나간다.

광저우 아시안게임에는 탭고와 폭

고 대표 최홍선발전 1위에 오르면서 당당하게 태극마크를 따냈다.

남상용씨는 “일본보다는 중국이 더 까다로운 상대다. 특히 중국의 안방에서 열리는 만큼 출현들의 열렬한 응원에 주눅들지 않고 뒷세를 이겨내느냐가 메달 색깔을 결정할 것으로 본다”면서 “열심히 훈련했던 만큼 음악에 몸과 마음을 맡기고 즐긴다는

단다면 기업 후원 등을 기대할 수 있기에 마지막 컨디션 조절에 힘을 쏟고 있다.

조상호씨는 “스탠더드 다섯 종목 중 모두 뛰고 왈츠까지 출전해 체력적인 부담이 크다. 특히 5종목은 각국의 예시 커플이 모두 나오기 때문에 운이 많이 따라줘야 한다. 왈츠에 더 큰 기대를 걸고 있다”고 말했다.

2005년 11월부터 호흡을 맞춰왔던 이상민-김혜인 커플도 지난해 동아시아게임 빈할츠 금메달과 퀵스텝 은메달, 실제 아시안게임 빈할츠 퀵스텝 각 은메달을 획득했던 실력으로 우승 다투고 있다. 이번 광저우 대회에선 퀵스텝에만 출전해 승부수를 던진다.

이상민씨는 “퀵스텝은 음악이 빠르고 어니치 소리가 많다. 중국의 양차오, 일본의 이시하라 커플과 우승을 다툴 것으로 보인데 데 중국 출현자들의 극성 응원 분위기에서 압박감을 이겨내는데 중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라틴 5종목(볼바, 차차차, 샴바, 파소드블레, 자이브)에 출사표를 던진 김대동-유혜숙 커플과 샴바, 파소드블레에 출사표를 던진 이혜인 커플, 차차차와 자이브에 나서는 김도현-박수효 커플도 깜짝 우승을 바라보고 있다.

이성민은 “퀵스텝은 음악이 빠르고 어니치 소리가 많다. 중국의 양차오, 일본의 이시하라 커플과 우승을 다툴 것으로 보인데 데 중국 출현자들의 극성 응원 분위기에서 압박감을 이겨내는데 중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대표 소집 기간은 생활비를 충당해왔던 개인 교습을 할 수 없어 부모님에게 손을 벌리는 신세지만 금메달을

스트롯에 참가해 모두 금메달에 도전한다.

남상용-송이나 커플은 지난해 홍콩 동아시아게임 때 스탠더드 5종목(왈츠, 탭고, 빈할츠, 폭스트롯, 퀵스텝)과 슬로폭스트롯에서 각각 은메달을 따. 또 같은 해 실내 아시안게임에선 슬로폭스트롯 은메달, 왈츠 동메달 등 국제대회에서 꾸준히 성적

을 냈다.

남 파트너인 남상용씨가 군대에 다녀와 훈련 공백이 조금 있었음에도 프사로 전향한 후 세 번째 참가했던 올해 회장과 대회에서 2등을 차지하

마음으로 경기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또 다른 연인 콤피인 조상호-이세희 커플은 스탠더드 5종목과 왈츠에 출전한다.

2005년 마카오 동아시아게임 때 퀵스텝 은메달을 사냥했던 윤학준-박은정씨의 제자인 조-이 커플은 아시아 최강자 자리에 올라 비인기 스포츠 탓에 겪어왔던 설움을 털어내겠다는 각오다.

대표 소집 기간은 생활비를 충당해왔던 개인 교습을 할 수 없어 부모님에게 손을 벌리는 신세지만 금메달을

‘태극 커플’ 스탠더드 부문 참가 금 2 목표 구슬땀

“아시아 최강자에 올라 비인기 스포츠 설움 털겠다”



이상민-김혜인 커플은 퀵스텝에 승부수를 던진다.

산 행 안내 (Mountain Hiking Guide) with various hiking routes and details.

11월 9일(화) 11월 10일(수) 11월 11일(목) 11월 12일(금) - Golf course schedules for Daewon Golf Club and others.

www.daewontour.com - Golf and travel services advertisement.

11월 17일(수) 11월 18일(목) 11월 19일(금) 11월 20일(토) 11월 21일(일) 11월 22일(월) 11월 23일(화) - Detailed golf course schedules.

11월 24일(수) 11월 25일(목) 11월 26일(금) 11월 27일(토) 11월 28일(일) - More golf course schedules and event information.